

해방기 여학생 정치참여와 우경화 -국대안 파동과 응변대회를 중심으로-

코주 리디아 (베니스 카포스카리대)



1. 해방기 여학생 응변대회의 실제

- 개인과 집단, 국가권력의 상상과 실천이 학생의 정치적 표현을 관장하는 형태의 정치 교육 활동.
- 학생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프로파간다
- 기획주체/심사위원 선별/배제의 논리에 따라 우승 응변 당선

2. 학생이 자치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학원의 민주주의냐?

국대안 파동: 경성대학과 9개 관립 전문학교를 국립서울대학교로 통폐합하고 그 운영을 외부인으로 구성한 이사회에 맡기는 조치
-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에 따른 학원의 분규와 대학 자치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다른 주체들의 투쟁
- 많은 교수/교사와 학생들이 동맹 휴학 참여
- 동맹휴학파 (4만여명) VS 맹휴 반대파 (건설학생회)



국립서울대학교건설학생회
<전국 남녀 학생에게 격함!>
“악질 불량 학생들은 맹휴
자체가 윤상이 되어 각 영화관,
주장에 아침부터 점입하여
학생의 본분을 잃고 향락에
빠진 자”
“학원의 맹휴는 현세기
문화면에서의 퇴진이요,
필연적인 역사 진행에서의
나오이며 자멸입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관찰하는
유일한 무기, 조국문화 재건을
촉진, 확립하는 최후의 일은
학원에 들어가 배우며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건설학생회 = 반대세력
맹휴 반대로 좌파 학생 견제.

“맹휴는 학원의 적화를 담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다.
“진정한 학생이란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담론 형성.

휴학을 함= “학생들의 본분을 충실히
다 하지 않고 학원을 어지럽히는 것”
진정한 학생과 진정한 학생이 아니라는
구도를 형성.

3. 여학생들은 적극적 정치 활동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

- 폭행, 단식, 동맹휴학, 가두시위등으로 학원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그러나 정치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강력
중학생 윤남경: “애국가라고 정치운동에 날뛰는게 이상이냐? 방안에서 공부만
하는게 이상이냐? 남녀동등이라고 떠들기만하고 맹탕인 머리를 가지는게 또한
이상이냐? 『새살림』 1호 ‘여학생 페이지’ 코너



지一 女生學生

-미소공위 관련 인터뷰에서-

R양: “학생의 자치권을 꼭 인정해줘야 경찰의 학원 간섭은 절대로 없어져야 될 줄
안다.” C양: “지금 학원은 학생의 의견이라는 것이 수용되고 있지 않다.” “국대안
반대의 맹휴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없도록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문교정책을 실시 하도록”

학생은 조국을 건설할 중심 주체. 앞으로 천재가 되어 국가, 세계인류를 위해
공헌해라.

1. 한국인은 우수한 민족. 오래된 역사와 문화 기술을 보유. 종교, 과학, 국가 조직,
다 세계의 1등만 하자. 2. 다른 나라 민족성 다 별로다
3. 한국은 보호독립을 원치 않으며 자주독립이 가능한 국가다.

독립을 이룰 주체= 양심적이고 진취적이며 개인주의와 타산주의가 없는
우리 청년 남녀학도들

“학창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연마함이 통일된 우리 정부를 세우는 중대 과업”



서울대 법대주최로 1947년 11월 1-2
제 1회 전국 남녀중등학생응변대회
우승 당선작: 황영자, 18세 (중앙여중)
“천재여 이러나거라!”

우승 연사 파격조언 = 서울대 법대 무시험
합격



심사위원 박순천 감상평:
- 응변 참가자와 학교에 모인
“군중”= “장차 피려는 이나라
꽃송이”
- 연사들을 이 나라의 “애국자” 이자
“어질지사”
- 이 나라 주권을 차지려는 피의 투사
응변연사= “절개군은 아들과 딸”
국대안 반대 운동이나 휴학동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숨기지 않음.

“응변연사”는 “이제는 스승도
죽이고 학원에 맹휴를 선동하는
악마의 노림”을 피해갈 수 있는
“경비원”으로 호명됨.

- 응변대회로 산발적인 정치적 언어를 선별, 규범화. 학생 개개인의
정치 활동 무화

- 여학생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자 애국자로 호명. 다른 여성은
계몽하는 “예비 인텔리 여성”이었지만 휴학동맹과 같이 학교 바깥의
정치행동은 금지. 오로지 학내에서 공부에 집중해야 “애국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이 논문의 3장을 읽어보세요!

